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0호 【루계 제2636호】

주체110(2021)년 3월 6일 토요일 음력 1월 2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들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개강,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강사와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가리킨 필승의 진로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는 시기에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가 3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리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강습장소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강사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이행시키며 전국의 균형적동시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시, 군당사업을 혁신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특별히 중시하고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사상이 포치된 이후 제일먼저 시, 군당책임비서들을 위한 강습회를 조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정책의 말단지도단위, 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인 시, 군의 중요성과 시, 군당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 제8차대회가 전국의 시, 군들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방향들을 밝혀준것만큼 이제는 모든것이 책임비서들의 분발력과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현 상황에서 시, 군당책임비서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고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으로부터 시, 군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이번 강습회를 품들여 특별히 준비하였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강습을 통하여 시, 군당책임비서들이 당중앙위원회앞에서 자기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며 시, 군강화의 중요성과 정책적요구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수한 경험들을 교환공유하면서 자기 시, 군을 추켜세울 뚜렷한 방도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학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강습회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 부문별회의로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시, 군당책임비서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 실무수준과 정신도덕적풍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시, 군강화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시, 군당책임비서들의 최근년간 당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원인을 총화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시, 군강화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가 3월 4일 계속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결론에서 현시기 시, 군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며 시, 군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시, 군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이 잘되여나가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 촉진되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이라면 시, 군당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정치적참모부이며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시, 군당위원회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시, 군당책임비서들의 능력과 활동에 달려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사업강화와 시, 군발전에서 책임비서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강습회를 계기로 시, 군당책임비서들의 안목이 더 넓어지고 정치의식과 혁명열의가 더한층 앙양되여 자기 시, 군을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락원으로 변모시켜나가는데서 새로운 큰걸음을 내짚으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에도 우리의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조건은 불리하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기대와 바램은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크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당중앙이 내놓은 정확한 로선을 철저히 견지하고 정확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해야 할 때이며 따라서 시, 군당책임비서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대단히 무겁고 중요하다고 재삼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받치는 격정과 새로운 신심에 넘쳐있는 시, 군당책임비서들에게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합쳐 싸워나아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강습회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원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승리한다

조건과 환경이 매우 불리한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계속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에 국제사회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비록 올해에 점령해야 할 목표는 아름차지만 공화국에는 그것을 능히 달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여있다.

그것은 공화국인민들의 손에 조선로동당이 안겨준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가 쥐여져있기때문이다.

지난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발전지향성과 력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혁신적인 목표들을 수립함으로써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자고 하시였다.

여러날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소식을 접하면서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천리혜안의 예지와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를 누구나 뜨겁게 느끼였다.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실천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기와 예지는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특출한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의 구절구절을 새겨보아도 그이의 위인상을 잘 알수 있다.

농업부문만 해도 그러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부문에서 올해알곡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철저히 집행하여 알곡증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히 다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성을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농사작전을 예견성있게 잘하여야 하며 특히 재해성기후에 대처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책을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또한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다수확품종재배면적을 늘일데 대한 문제,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 영농기전으로 저수확지를 옥토로 만들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기계생산단위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사업, 관개체계와 시설물들의 복원, 관수면적의 확장을 다그치며 간석지건설과 새땅찾기, 토지정리를 힘있게 내밀고 축산물과 남새, 과일,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며 국가적인 영농물자보장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람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9시간에 걸쳐 앞으로 5년간 공화국이 나아갈 새로운 투쟁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감복을 금치 못했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도 연 3일간에 걸쳐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보고를 하시는 그이의 영상을 뵈오며 영명하신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인 공화국인민이다.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막아서도 현실가능하며 대담하고 혁신적인 사회주의건설목표들을 확정하여 인민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비상방역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제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조치를 취하려는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그리고 전원회의를 결속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결정된 과업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와 철저한 집행으로써 혁명사업을 전진시키고 인민들이 개변된 실상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랑하는 자기 인민에게 우리의 충정을 검열받을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동지들이 더 노력하고 분투하여 우리 당의 웅대한 투쟁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혁명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줄것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예술로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사회주의건설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리정표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켜주신대로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억척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공화국인민들은 이 한해도 밝게 내다보며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새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크게 내짚자!

온 나라가 드높은 투쟁열의로 들끓고있다.

김금화

강선의 불은 노을

전세대들의 애국충성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무조건 완수할 결의를 담은 황철로동계급의 호소문이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당의 부름앞에 산악같이 일떠선 황철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은 잊지 못할 력사의 분수령에서 강철로 조국을 받들어온 강선의 로동계급을 그려보게 해주고있다.

국내외의 적대세력들이 음으로양으로 공화국의 발전을 방해해나서던 엄혹한 1950년대 중엽의 그 나날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1956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에서는 강선제강소(당시)의 로동계급에게 계획보다 1만t의 강재를 더 생산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강소에서는 내부예비탐구사업을 하고있었으나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그해도 다 저물어가던 12월말이였다.

조선로동당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는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아주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저 일군들과 다음해 국가과제로 맡은 강재 8만t외에 1만t을 더 생산할수 없겠는가를 의논하시였다.

일군들은 지금 제강소에서 내부예비탐구사업을 하고있지만 분괴압연기의 생산능력이 6만t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량을 생산하기 곤난하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들로부터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하신 수령님께서는 직접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자고 결심하시고 협의회를 포치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도람통에서 타래쳐오른 연기가 채 빠지지도 않은 창고자리에 꽉 들어찬 로동자들앞에서 수령님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안팎의 형편을 툭 털어놓으시며 우리 당은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믿고있으며 동무들에게 기대를 걸고있다,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동무들은 기세를 올리고 분발하여 생산도 많이 하고 건설도 잘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대고조의 열풍은 강선의 남녀로소모두의 가슴마다에서, 일터마다에서 세차게 일어번졌다.

마침내 강선땅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래우는 영웅적위훈이 창조되였다.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9만t도 아닌 12만t을 해낸것이다.

밤낮없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주홍색쇠물빛은 그대로 노을로 피여나 온 강선땅을 붉게 물들였다.

공화국이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주체의 강국으로 비약하게 한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은 이렇게 타오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 신념으로 지펴주신 강선의 노을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 제8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자력갱생의 노을, 진군의 노을로 온 나라에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매듭과 흠모

신념과 의지가 강하신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공화국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신념과 의지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이 결부될 때에 생겨나게 된다. 더우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수많은 시련의 고비를 넘고 헤쳐야 하는 장기적인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이룩하는 길에서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흘러온 공화국의 력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강한 신념과 의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승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강렬한 지향과 실천에서 표현되고있다.

주체100(2011)년 12월, 민족이 대국상을 당하였을 때 세계는 조선이 이제 어느 길로 가겠는가를 우려하며 주시하고있었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일떠서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1㎜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고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 이듬해 첫아침 그이께서 찾으신 곳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수많이 새겨져있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군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105땅크사단은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하신 소식이 전해지자 이 땅은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으로 세차게 굽이쳤다.

이렇게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의 려정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단위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로 끝없이 이어졌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념원을 이 땅에 꽃피우는것을 변함없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가다듬으시며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인민위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여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을 이 땅에 떠올리시였다.

그래서 아직은 풍족하진 못하지만 이 나라 인민들은 자기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려 천만고생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위민헌신의 세계를 온몸으로 받아안으며 더없는 행복을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분이신가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빛나게 수호하고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데서도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이후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흉계는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우심해졌다.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애써 마련해온 인민의 보금자리를 내주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와 국방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는것으로써 적대세력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직 자체의 힘,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내리신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표명이였다. 지난해 10월의 경축광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만큼 발전하고 변했다고 엄숙히 선언하신것처럼 공화국의 국방력은 세계적으로 무시할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바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시려 사생결단의 날바다길도 서슴없이 헤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인것이다.

오늘날 세인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련속 피력하시며 공화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격찬과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모두다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에 심장의 맹세로 화답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조선은 녀성들의 천국》

공화국녀성들의 행복넘친 모습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녀성존중의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오늘날 행성의 곳곳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들이 거리낌없이 벌어지고있다. … 녀성평등을 위한 국제법적규범이 현실화된 나라, 녀성중시의 화원이 펼쳐진 나라가 다름아닌 조선이다.》고 하였다.

인디아전국녀성련맹 서기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녀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 세금이 없고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는 이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키울 걱정, 공부시킬 걱정,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는 참으로 훌륭한 사회적조건하에서 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녀성들의 행복의 락원이다.》고 토로하였다.

아일랜드의 한 녀성인사는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녀성들이 누리고있는 행복넘친 생활이라고 하면서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이 터친 격찬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온갖 구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참다운 녀성인권을 요구하여 미국 시카고의 녀성들이 대중적투쟁을 벌린지도 한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이 지구상의 여기저기에서는 존엄과 권리를 유린당한 녀성들의 한숨과 곡성이 차넘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녀성이라는 리유로 남자들보다 일자리 얻기도 더 힘들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로임을 훨씬 적게 받고있으며 삶을 비관하는 녀성들속에서 자살의 길을 택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얼마전에 보도된데 의하면 일본에서는 한 녀성이 임신한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였다가 멸시와 랭대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유럽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녀성들치고 성폭력을 당하지 않은 녀성이 없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 모든것은 자본주의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녀성천시풍조가 낳은 비극적인 현실들이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되게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는것인가.

사회정치활동가, 정권기관의 일군,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는 물론 문필가, 창작가, 예술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녀성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조선녀성들이 오늘과 같이 복받은 삶을 누릴수 있은것은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대를 이어 받아안은데 있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녀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굴욕과 천대,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던 조선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이 풀리게 되였다.

녀성들의 힘을 믿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고 자주 외우시며 녀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라는 유명한 명제속에 집대성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녀성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수많은 녀성들이 조국청사에 뚜렷한 생의 흔적을 새기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정치를 그대로 이어나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녀성들을 만나실 때면 그리도 대견하시여 온갖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돌보는 녀성들과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된 녀성들을 온 나라가 다 아는 애국자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녀성들에 대한 노래 《사랑하시라》가 창작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국제부녀절을 계기로 내보내도록 하시고 어느해인가는 3.8절을 기념하는 공연을 녀성들과 함께 관람하시고 관람자들에게 《봄향기》화장품까지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이렇듯 다심한 사랑과 뜨거운 정이 있어 조선녀성들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과 시련의 그 나날에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자신들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남김없이 바쳐올수 있은것이다.

대를 이어 운명을 지켜주고 미래를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안긴것은 공화국의 녀성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행운이고 최대의 행복이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첫해의 국제부녀절을 성대히 기념하는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해주시고 녀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없다고 하시며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녀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위하시는가 하는것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본 외국의 벗들의 반향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녀성들의 보금자리, 녀성들의 천국》,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조선녀성들만이 누릴수 있는 가장 큰 복》…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행복에 울고 기쁨에 목메였던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한 녀성과학자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포공녀성, 삼지연시의 세쌍둥이처녀자매와 강선의 《처녀어머니》, 세기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녀성축구선수들과 창성땅의 녀성들, 섬초소의 군인가족들과 감나무중대의 녀성병사들…

진정 녀성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 뜨거운 손길아래서 조선녀성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훈과 혁신을 떨쳐가고있는것이다.

예로부터 믿음은 충성을 낳고 사랑에는 보답이 따른다고 하였다.

자신들을 가정의 질곡, 사회의 구속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보답하려는것이 이 나라 녀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난 2월 새로운 승리를 향한 대진군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려는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궐기대회가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이 궐기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진로따라 나아가는 총진군에서 우리 녀성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를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뚜렷한 생의 자욱을 새겨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태양의 빛을 받아 녀성들의 삶도 빛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삶의 샘줄기로 받아안고 오늘의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승리자로 계속 위훈떨쳐가려는것이 이 나라 녀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위인의 명언 ◎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 명언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민족대단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그것은 조국통일위업 그자체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기때문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위업도 이룩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겨레가 뭉쳐서 통일대진군을 벌려나갈 때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하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은 통일강국이기도 하다. 민족이 힘을 합쳐야 통일도 오고 통일강국의 밝은 미래도 펼쳐질수 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온 겨레는 민족의 오랜 분렬로 초래된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없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롱락당하게 된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 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도 세계를 둘러보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세에 눌리워 모든것을 양보한탓에 여러 나라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처참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가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맥맥히 흐르고있는 민족정기는 자주를 앞세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성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경제부문에서 과감한 돌격전이 벌어진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총매진할데 대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의 열렬한 호소에 화답하여 떨쳐나선 각지 근로자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날에 날마다 혁신의 새 소식들이 도처에서 전해지고있다.

특히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황철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증산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의 선봉에서 철강재증산의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자.

이런 뜨거운 열정, 전진의 기상이 주요 제철, 제강소들과 광산들, 전극과 내화물생산기지들에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황철의 호소에 접하면서 금속공업부문이 경제건설의 1211고지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긴 북방의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철강재증산과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실천적성과로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해나갈 열의드높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도 황철로동계급의 호소문이 안겨준 격동과 흥분을 투쟁과 전진의 힘으로 분출시키면서 과감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불사신같이 싸워 철강재증산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든 전세대 강철전사들이 지켜보고있다는 자각을 안고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가스발생로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기어이 완수하기 위하여 완강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특히 보산제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속에서 철강재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갈 굳은 맹세를 실천으로 증명하며 전진하고있다. 회전로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을 중심고리로 정한 이들은 지금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로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로운영을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면서 매일 뚜렷한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은률광산, 재령광산, 홍산광산, 람정광산, 장산광산, 홍남전극공장을 비롯한 철광석, 내화물, 전극생산기지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화답하여 제철, 제강소들의 뜨거운 숨결에 활력을 더해주기 위해 더욱 더 분발하고있다.

강철전사들과 보폭을 같이하며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창에서 주체비료생산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나갈 맹세안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강하게 뚫고나가며 비료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로 떠들썩한 전력, 석탄전선에서도 생산돌격전의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전투에 진입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지방순회공연길에 오른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이 힘찬 음악포성, 진격의 나팔소리를 힘있게 울리고있다.

이 시각 모두의 가슴마다에 넘치는것은 이 기세로 계속 내달린다면 올해의 투쟁에서 더 큰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리라는 확신이다.

신심이 있는 곳에 열정과 투쟁이 있고 승리가 있는 법이다.

승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질풍쳐 나아가는 공화국인민의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푸른 숲에 어린 애국의 세계

겨울이 가고 봄을 맞은 공화국의 각지에서는 나무심기가 한창이다.

제손으로 나무모들을 정히 심는것, 이것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가슴에 안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응당하고 보람있는 일로,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하여 나무묘목생산을 공업화한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도처에 일떠서 온 나라를 수림화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다. 또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운동으로 봄과 가을철에 나무심기가 힘차게 벌어져 수많은 면적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였다. 산림조성에 필요한 새로운 기계들이 연구개발되고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도 확립되여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최근년간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민의 헌신적인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식수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수년전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도 그이의 이런 결심과 구상이 자자구구에 어리여있다. 이 로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산림을 복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주체103(2014)년 11월에는 중앙양묘장을 찾으시고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를 잘해나가는데서 묘목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1세기의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일떠세우도록 해주시고 몸소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현지를 찾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리고 이 양묘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도, 시, 군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많이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산들을 하루빨리 푸르게 하고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겠는가 하는데 대해 깊이 사색하시고 실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며 그들의 어린 가슴들에 소중한 애국의 넋을 심어주시였고 또 어느해에는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면서 조국애, 향토애를 심어주시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애국의 감정은 저절로 싹트고 자라나는게 아니다.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나날을 통하여 더욱 소중히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는것이다. 식수는 애국의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애국주의에 대한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훌륭한 정의는 없다.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라.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 고패치는 숭고한 애국의 마음이며 그 뜻과 정신을 따라배워 온 나라 인민들이 애국의 마음안고 산들에 나무를 정히 심고있다.

한그루의 어린 나무모를 심고 아름드리거목으로 자래우기까지에는 많은 품이 든다.

한그루의 나무를 가꾸는것도 이러할진대 온 나라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하게 해주시려고 그처럼 거창한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끌어주고계시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의 마음, 애국의 세계의 그 폭과 깊이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변모시키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 후날에 살게 될 후대들까지도 부러운것 없이 드높은 긍지와 행복만을 누리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민의 뜻과 열정에 받들려 조국산천은 날로 더욱 푸르러가고 인민의 재부는 끝없이 늘어만 가고있다.

장혁철

단상

한그루한그루가 모여

지난 2일은 식수절이였다.

이날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거리와 공원, 산들에 나무들을 심었다.

나도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가슴속에 담아보며 집뒤산으로 여러 그루의 묘목을 정히 안아들고 올랐다.

내가 태여나고 부모들의 태가 묻힌 고향의 뒤산이 백과가 무르익는 보물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에서 자래운 잣나무묘목들을 그곳에 심기로 하였던것이다.

한걸음한걸음 산을 오르는 나의 눈에 묘목들과 삽을 들고 산에 오르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이 정겹게 안겨왔다.

종자에서 싹이 트고 아지를 뻗은 오늘까지 이제나저제나 정든 고향 뒤산에 내 손으로 떠옮길 그날을 기다려온 내게 있어서 그날은 참으로 류다른 날이 아닐수 없었다.

자그마한 묘목들을 심는것은 그리 크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다.

허나 그 소박한 일에서부터 나라를 위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이 싹트는것이라고 부모들은 나에게 가르쳤다.

잔뿌리가 상할세라 정성담아 묘목을 심는 나에게 함께 산에 오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이 묘목들이 자라 거목으로 될 때 이 산은 더욱 무성해질게다. 너희 자식들이 그 숲에서 열매들을 따들일 때 여기에도 내가 심고 자래운 나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정성을 기울인 나무들이 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앞으로 이 나무들을 잘 돌보거라.》

남다른 의미를 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나는 그 뜻을 음미해보았다.

조국앞에 자기의 땀과 진정을 바칠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먼 후날에도 떳떳하게 자기의 량심을 바치길 바라는 어머니의 당부였다.

나는 눈길을 들어 봄바람이 불어오는 고향 뒤산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은 갖가지 묘목들이 따뜻하게 비쳐드는 해빛을 받으며 자기의 잎새들을 흔들었다.

또 열성껏 땅을 파고 묘목들을 심어나가는 이 나라 사람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이 눈앞에 안겨왔다.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이 이 나라 한사람한사람의 애국의 마음이 모여 부흥할 조국의 래일이 오는것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안고 내가 심은 나무를 다시 바라보며 뿌리에 바람이 들세라 정성껏 흙을 다져주고 물을 주었다.

강국철

《민간업체까지 동원하여 무장장비첨단화에 광분한다》

최근 남조선군부가 추진하고있는 첨단무장장비개발과 관련한 계획들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이데일리》, 《뉴시스》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방위사업청이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올해 국방연구개발비용은 지난해에 비해 10.5% 늘어나고 핵심국방기술연구개발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된다고 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중소방위산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부분품의 자체생산비중을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들과 군수업체들이 올해에 이지스구축함 《광개토대왕-3》호에 장착할 요격미싸일, 반항공식별구역안의 비행물체들을 감시, 식별할수 있는 다음세대 장거리레이다, 조선반도상공에 떠있는 인공지구위성과 우주물체들을 추적, 감시할수 있는 첨단레이다장비 등을 자체로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보다 앞서 방위사업청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수많은 자금을 투입해 경항공모함의 설계와 건조를 자체의 연구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남조선당국과 군부가 첨단무장장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은 《국방개혁 2.0》 실현의 연장선이라고 한다.

올해초 남조선언론 《뉴시스》, 《이데일리》 등은 남조선국방부가 업무보고라는데서 《전방위국방태세확립》, 《모든 안보위협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운운하며 《국방개혁 2.0》을 완수할것이라고 하면서 《무인체계전력화를 통한 감시, 경보기능, 북의 미싸일위협에 대비한 선제적조치, 한미맞춤형 핵, 미싸일억제전략 및 공동미싸일대응전략, 핵심전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2월초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도 《국방개혁 2.0》의 추진정형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서술하면서 남조선군의 《독자적인 억제, 대응을 위해 〈전략적타격체계〉와 〈한국형미싸일방어체계〉를 구축중이고 관련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할것》이라고 밝히였다고 한다.

남조선군부가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탕진하려 하고 대기업은 물론 민간업체까지 끌어들여 무장장비첨단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안보위협과 무관한 혈세랑비》, 《조선반도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질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검찰개혁에 여전히 반기를 드는 보수야당

남조선에서 적극화되고있는 검찰개혁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계속 반발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서울경제》, 《경향신문》 등은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중간급인사를 단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로 불리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립의 립법을 추진하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설립은 간단히 말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말한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페지하고 법무부산하에 《중수청》을 설립하는것이라고 한다.

《중수청》설치와 관련하여 이전 법무부 장관은 《70년만에 이루는 력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론의될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론쟁과는 단호히 분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당국과 여당이 추진하고있는 《중수청》설립법안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고 한다.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수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으로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것인가?》고 반발하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비리를 은폐하려 한다.》, 《중수청설치 립법폭주에 단호히 맞설것》이라고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고있다고 하였다.

보수의 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세계일보》는 검찰내부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중수청》설치문제는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사안인데다 《식물검찰》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기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만큼 조직과 영향력이 쪼그라들수밖에 없다, 검찰이 립장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격화되였던 여권과 검찰, 여야의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중수청》설립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검찰적폐세력을 부추기며 당국과 여당을 공격하고 당면한 보충선거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열어보려 한다고 분석하고있다.

본사기자

만평 《주도권쟁탈전》

권력탈취야망이 비낀 정계개편론

위기의식의 발로

남조선언론 《파이낸셜뉴스》, 《련합뉴스》 등은 보수세력내부에서 야권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렬하게 진행되는 속에 그들의 시선은 보충선거이후를 바라보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정계개편으로 새로운 야권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보충선거이후에도 기대를 걸어볼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인물은 새로운 개편이 있지 않고는 야권후보가 제대로 설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 보수가 모두 모이는 《자유주의상식련합》을 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여기에 《국민의 당》 대표를 비롯한 《3지대》인물들도 보충선거에서 보수단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범우파련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보수내부에서 정계개편구상이 동시다발로 분출되고있는것은 야권후보단일화로도 보충선거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의구심, 기존간판으로는 참패할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속에서 그 무슨 정계개편론이 나돈다고 한다.

《자유주의상식련합》, 《범우파련합》, 《서울시련립정부》 등이 그러한것들이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여러가지로 분석하고있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진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서울시장보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커가고있다고 전하였다.

더불어민주당후보의 지지률이 상승하는데다 보수야권단일화를 둘러싼 관심이 《국민의 당》 대표에게 쏠리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후보와 《국민의 당》 대표가 1, 2위이고 《국민의힘》후보들은 3~5위권을 차지했던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경선토론회에 대한 시민, 언론들의 관심도에서도 《국민의힘》은 《3지대》에 밀리였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보충선거를 한달 남짓이 앞둔 지금 《국민의힘》내부에서는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있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정계개편인가, 주도권쟁탈인가?

남조선언론 《파이낸셜뉴스》, 《련합뉴스》 등은 서울시장보충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야권인사들이 정계개편문제를 둘러싸고 주도권싸움을 시작했다고 보도하였다.

《국민의힘》의 어느 한 인물은 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는것은 당이 큰 그릇으로 못 담아내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모든것을 담아내야 하는 그런 정계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야권의 한 인물은 《지금 반쪽의 야당만으로는 야당판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보충선거가 끝나고 당이 정비되여 《국민의 당》을 포함한 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가 될 때 야당판이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언론들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체제에 불만을 품고있던 세력들이 대렬정비의 명목으로 당내 주도권장악을 위한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고 분석하였다.

본사기자 안권일

물가급등으로 인한 주민생활난이 더 커질것이라는 우려 확산

얼마전 남조선언론들은 최근 물가상승세가 례사롭지 않다고 하면서 곡물가격상승으로 빵, 즉석밥 등 주요 가공식품값이 줄줄이 오른데다가 원자재가격도 가파로운 상승세를 보이고있어 주민생활에 충격이 클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전망이 심상치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 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률이 한달전보다 0.2% 오른 2%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8월(2%)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와 비교한 1년뒤의 물가수준전망지수(144)도 2% 상승해 2019년 5월(145)이후 1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품목은 농축수산물(52.4%), 집세(40.1%), 공공료금(31%)순으로 나타났다.》

언론들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활물가마저 가계를 위협하고있으며 원자재가격 상승추이를 보면 공업생산품가격과 공공료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달부터 전기료금과 연료비련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료금도 인상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

◁일본 각지에서 전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학교 차별책동에 맞서 민족교육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이 일본 각지에서 계속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크행동》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크》, 야마구찌보조금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일본 야마구찌현에서 진행되였다.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위원장 박철, 야마구찌조선초중급학교 교장 오영철과 현내 재일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을 규탄하며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항의행동을 비롯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정부가 민족교육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도록 하는것이 투쟁의 핵심이며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과거청산으로 이어지는 투쟁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위해, 자라나는 후대들의 교육권리를 위해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투쟁참가자들은 야마구찌조선초중급학교에 대한 보조금지불재개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일본당국과 지방자치체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규탄하며 거리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후꾸오까현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실현을 요구하는 후꾸오까현민집회가 있었다.

규슈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과 교원들, 보호자들을 비롯한 동포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시민단체 성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일본정부의 민족교육차별정책은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학교지원제도와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 학생들과 나어린 유치반 아이들을 배제한것도 모자라 전염병사태에 대처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까지 조선학생들을 제외하였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이것은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들의 비렬한 행위라고 하면서 당국의 차별행위에 맞서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이어 규슈지방지원문제관련 변호단 변호사들의 련대발언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의 모든 재판소가 국가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묵인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난하였다.

고등학교지원제도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는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의 부당성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학교와 유치반들의 지원제도적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호소문이 랑독되였다.

안혜심

민족적분노를 폭발시킨 자아내는 략탈망동

백주에 흰것도 검은것이라고 입방아질을 해대며 무분별하게 날뛰는자들이 있다. 바로 일본의 현 당국을 비롯한 극우세력이다.

지난 2월 22일 일본이 시마네현에서 그 무슨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 해괴한 광대극을 또다시 벌려놓은것이 그에 대한 실증이다.

독도가 조상전래로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라는것은 력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이를 립증하는 자료는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발포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를 저들의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1905년 2월 22일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 무슨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을 고안해내고 2006년부터 해마다 《기념행사》라는것을 벌려왔다.

더우기 그러한 행사가 일본당국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아래 군국주의후예들의 재침야망을 부추기는 정례적인 광대극으로 진행되여왔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독도를 한사코 분쟁의 초점으로, 재침의 도화선으로 하여 과거의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이다.

남의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억지궤변을 고아대는 일본의 망동을 보면 령토야욕은 버릴수 없는 섬나라족속특유의 유전인자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정객들과 극우세력이 시궁창의 지렁이들처럼 시마네현에 모여들어 남의것을 제것이라고 넉두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신성불가침의 독도가 일본의것으로 될리 만무한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도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책동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동북아력사재단은 립장문을 내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이다.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울릉도와 함께 고문헌과 고지도에 기재돼있다.》고 까밝히면서 독도는 《력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조선고유한 령토이다. 일본이 식민지침탈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놀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도 독도자료전시회를 열고 일본의 령토강탈책동을 폭로하는 항의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벌어지는 반일항의투쟁은 과거 범죄에 대한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오히려 날강도적인 령토강탈야욕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일본에 대한 솟구치는 증오와 울분의 폭발이다.

독도는 그 누가 감히 부정할수도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조선민족의 령토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독도가 조선민족의 고유한 령토임을 보여주는 옛 지도
(1530년에 제작된 《8도총도》)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죽음의 고역장—《대본영지하실》공사장

일본 나가노시의 마쯔시로는 옛날부터 온천으로 이름난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는 지울수 없는 원한이 뼈에 사무친 땅이다.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저들의 패배가 결정되여가던 1944년에 일제는 《최후결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곳에 지하실을 파고 《대본영》을 옮기기로 하였다.

《대본영》이란 일제가 침략전쟁을 벌리면서 왜왕밑에 두었던 최고통수부이다.

일제는 이 공사에 당시의 금액으로 2억¥의 막대한 자금과 함께 수많은 로력을 동원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조선사람들이였다.

공사계획을 세울 때에 벌써 그 인적자원을 조선사람들로 보았던것이다.

당시 일본수상 도죠 히데끼는 공사의 설계가 완성되였다는 보고를 받자 조선총독에게 조선사람들을 징발하여 마쯔시로에 긴급히 보내라는 비밀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일제의 경찰, 헌병, 군대가 총동원되여 《인간사냥》에 떨쳐나섰고 조선의 수많은 청장년들이 현해탄을 넘어 마쯔시로비밀공사장에 끌려갔다.

일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와데현발전소 건설장의 1 600여명 조선인로동자들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철도공사장과 군수공장건설에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사람들도 이곳으로 끌어왔다.

공사장에서 조선인로동자들은 짐승우리만도 못한 《함바》의 랭방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고 썩은 《콩또래밥》 한줌으로 주린 창자를 달래며 마소와 같이 고역을 강요당해야 했다.

헌병들, 특별고등계의 경찰들이 돌아치고 무장한 감시병들이 로동자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던 공사장은 말그대로 철창없는 하나의 큰 감옥이였다.

조선사람들은 새벽 4시면 벌써 공사장에 내몰렸다. 그들은 신새벽부터 온종일 채찍속에 고역에 시달리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다리를 끌며 《함바》로 들어서군 하였다.

매일과 같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죽음의 고역장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제는 탈출하는 조선사람들을 붙잡으면 가차없이 총살을 하거나 수백메터나 되는 절벽우에서 떨구어 학살하였다.

또한 조선인로동자들을 쇠함안에 던져넣고 거기에 자갈과 세멘트혼합물을 쏟아부어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하였다.

《대본영지하실공사장》에서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시체가 실려나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일제도 조선사람들의 무덤이 늘어나는것이 두려워 평무덤을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멀리 실어다가 없애버렸다.

마쯔시로《대본영지하실공사장》은 말그대로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굶주림과 공포, 불안과 죽음의 인간생지옥》이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잔인한 학살만행에 대해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일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 끌려온 로동자들은 흰저고리를 입고있었는데 그들은 십장이나 감독의 눈에 띄우지 않기 위하여 옷에 콜탄칠을 하고있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십장놈은 곡괭이채로 마구 때려 반죽음을 시키군 하였다. 시체는 가마니안에 처넣어서 날랐는데 시체가 하도 많아서 어떤것은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못이나 강물에 처넣기도 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유골은 행처도 모른다.》

길이가 약 13km, 총면적은 43㎢나 되는 《대본영지하실》공사가 아무런 기계수단도 없이 순 인력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니 여기서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얼마나 혹사하고 어떻게 희생시켰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왜왕의 침실공사는 극비밀리에 진행되였는데 여기에 동원되였던 180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은 단 한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비밀보장》이라는 구실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극비밀리에 집단학살하였다.

마쯔시로《대본영지하실공사장》은 일제에게는 《피난처》였지만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죽음의 마굴, 인간생지옥이였다.

옥철웅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실력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녀성인재들

조수경연구사 정성영부실장 김수경설계원

녀성과학자, 녀성교육자, 녀성예술인, 녀성체육인, 녀성건축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진로따라 새 승리를 이룩해가는 총진군대오의 앞장에는 미더운 녀성인재들도 서있다. 불같은 애국충정과 높은 실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떠밀고나가는 그들을 《통일신보》가 만났다.

개발창조의 숫눈길을 헤쳐가는 과학자

기자가 공훈과학자이며 박사인 평양기계대학의 자원개발기계공학부 조수경연구사를 찾아가니 그는 연구과제를 놓고 토론에 여념이 없었다. 외모는 소박하고 수수해도 예지가 빛나는 두눈이며 열정적인 모습은 실력가형의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엿보게 했다.

문득 조수경연구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두고 보기 드문 이악쟁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첨단개척의 길을 걸어갈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어떤 연구목표도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마는 그에 대한 통속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쉴참에 기자와 마주앉은 조수경연구사의 추억은 11년전 녀자여름양말자동포장기를 개발하던 나날로 거슬러올랐다.

《당시 자동화된 양말포장기는 세계적으로도 한두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여있었습니다. 문헌자료 하나 없이 시작한 연구사업인지라 고충이 컸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자 이렇게 힘든줄 몰랐다며 손맥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수경연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세계와 경쟁하는 어려운 연구과제를 외면한다면 언제 가도 남을 따라앞설수 없고 남의것만 쳐다보는 기술의 노예가 되고만다는 자각으로 분발하여 석달만에 설계를 완성하고 양말포장기를 만들어낼수 있었다.

하지만 시운전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줄이야. 설계를 수정하고 부속품을 재가공하여 다시 조립하기를 그 몇번…

그는 녀자여름양말의 특성을 깊이 연구하면서 설계지표를 하나하나 확정하기도 하고 밤새워 녀자양말을 접었다폈다하는 동작을 수백번이나 해보면서 끝내 양말접이장치를 개조할 실마리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이렇게 완성한 기계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여드리게 되였을 때의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하랴.

주체99(2010)년 12월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양말포장기를 설계한 평양기계대학 연구사인 조수경동무가 참으로 기특하다고, 그가 대동강식료공장의 설비를 현대화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는데 오늘 과학기술로 강성대국건설에서 한몫하고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가운데는 녀성들이 적지 않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해주실 때 그는 크나큰 그 믿음에 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였다.

그후에도 조수경연구사는 녀자무릎양말포장기, 녀자짧은양말포장기, 남자봄가을양말포장기 등 여러 종류의 자동화된 양말포장기들을 훌륭히 만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기계공학분야에서 20여년간 과학연구사업을 해오는 나날 자동화된 양말포장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지만 그는 언제 한번 자기의 실력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한다.

과학자에게 완전무결한 실력이란 없으며 끝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것이 그의 성실한 학습태도이다.

그는 짬만 있으면 사색하고 새로운 구상이 무르익으면 부지런히 종이에 적어놓는다. 이렇게 생겨난 구상안들이 그의 책상에 무드기 쌓여있었다. 상점에서 새옷을 살 때보다 책방에서 책을 살 때 더 기뻐하는 조수경연구사이다.

품들여 다진 해박한 지식은 어떤 어려운 개발창조과제도 마음먹은대로 해낼수 있는 든든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그의 모습에서 기자는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수경연구사(왼쪽에서 세번째)는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척추박사》로 불리우는 명의

30대박사인 평양의학대학병원 척추교정치료연구실의 정성영부실장을 가리켜 사람들은 《척추박사》라고 부르며 존경한다.

한것은 그가 척추교정치료와 관련한 내용으로 박사론문을 쓴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척추질병의 진단 및 치료대책과 관련하여 모르는것이 없고 난치성질병으로 오래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들도 그의 치료를 받고 기적과도 같이 자리를 털고일어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참된 보건일군이 되리라!

이것은 정성영부실장의 마음속에 간직된 좌우명이다. 그러자면 높은 실력이 안받침되여야 하였다.

타고난 인재란 없는 법, 오직 꾸준한 학습과 정열적인 노력으로 지식을 다지고다질 때만이 유능한 인재가 될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중학시절 남달리 공부를 잘하여 7.15최우등상을 받은 그는 희망대로 평양의학대학에서의 학창시절을 탐구와 열정으로 수놓아갔다.

박사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평양의학대학 회복치료과(당시) 의사로 배치받았을 때 제딴에는 환자치료에서 자신있다고 생각했었다. 허나 각이한 척추질병환자들을 맡아 치료하는 나날 의료실천에서 배울것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체험한 그는 분발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성영부실장(왼쪽에서 첫번째)은 치료사업에 전념하는

그는 온종일 치료사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새워 척추질병치료와 관련한 각종 참고서들을 탐독하는 정열가이다. 그가 깊은 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떠오르는 착상을 실험해본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그였기에 천골—후두골척추교정치료를 운동료법과 배합하여 완치률을 90%이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것으로 여겨왔던 척추질병들을 교정치료로 완치하여 의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뿐이 아니다.

환자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영예군인, 전쟁로병들과 척추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찾아가 지극한 정성으로 회복시켜준 정성영부실장이다. 언제인가 부상자리가 도져 제대로 운신을 못하던 한 영예군인을 찾아가 담당의사가 되여 끝내 일으켜세우고야말았다.

오늘도 정성영부실장은 의료활동의 전 과정을 첨단의 학과학기술로 일관시키기 위해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얼마전에는 척추환자질병진단프로그람을 새롭게 개발하여 진단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고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르는 약물치료와 온열치료, 수술치료, 광천치료 등을 적극 배합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성영부실장은 말한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의료일군으로 일해왔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많이, 더 빨리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 실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겠습니다.》

전도가 촉망되는 건축가

백두산건축연구원에 가면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 쟁쟁한 실력가로 알려진 건축가가 있다. 그가 바로 3건축설계연구실의 김수경설계원이다.

지금까지 그는 창전거리, 릉라곱등어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들에 대한 설계와 건축형성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 사물현상에 대한 깊은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그의 재능의 싹은 평양건설건재대학(당시)에서 활짝 꽃펴났다. 대학시절 현실적의의가 큰 론문을 발표한 그는 그후 소망대로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건축가의 걸음을 내짚었다.

그의 실력은 첫 설계인 창전거리에 대한 건축형성안에서 유감없이 과시되였다. 관록있는 건축설계가들이 내놓은 형성안들중에서 구성이 독특하고 양상이 새로운 건축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그의 형성안은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건축물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양상이 독특하고 착상과 구상이 대담한 그의 특기는 릉라곱등어관에 대한 형성안설계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그는 릉라곱등어관에 대한 외부형성안을 푸른 파도를 헤가르는 곱등어의 형상으로 창작하여 전문가들의 이목을 모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작성한 릉라곱등어관형성안을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23살에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닌 그의 가슴속에서는 받아안은 사랑에 대한 보답의 맹세가 산같이 커갔다.

그후에도 그는 수십개 대상들에 대한 건축형성안과 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설계도에 찍는 점 하나, 긋는 선 하나에도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문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담을줄 아는 높은 실력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있는 그는 어떤 설계과제도 말아 척척 해제끼고있다.

총명하고 진취적인 김수경설계원의 나이는 32살, 그를 만나 기자는 보다 훌륭히 변모될 부강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그려가는 30대 건축설계가의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 ※

이들만이 아니라 전변의 모습을 펼쳐가는 건설장에 가보아도, 생산활성화의 동음높은 공장에 가보아도, 다수확농장의 영예를 빛내가는 협동벌에 가보아도 부강조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시대의 전형, 녀성인재들을 만날수 있었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이런 녀성들이 경제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었다.

그들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확신했다. 령도자와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애국의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가는 실력가형의 인재들이 많고많아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더욱 가속화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홍범식

김수경설계원(오른쪽에서 첫번째)은 새로운 설계에 대해 토의하는

《기술혁신에 증산의 비결이 있다》

나라의 경제사업에서 한몫하고있는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서 혁신창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우리와 만난 이 공장의 문명철직장장은 기술혁신에 증산의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증산을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선재직장, 연신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가동상태를 면밀히 따져보고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고있으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절연직장에서는 기대마다 기능공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실무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공장의 많은 로동자들이 원격대학에 입학하여 강의를 받고있는데 이들속에서 생산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고있다.

한편 공장에서는 설비와 생산공정들의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문제들을 기술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적극 추진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재절약을 또 하나의 증산의 예비로 여기고 내밀고있다.

공장의 기본제품을 완성하는 케블직장의 생산자들은 직장의 실적이자 공장의 실적이라는 자각을 안고 한m의 케블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분발해나섰다.

공장에서는 원료, 자재의 절약과 함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생산자들속에서 제기되는 자그마한 기술혁신안이라 할지라도 공장적인 기술토의사업을 조직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보장해주어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는 기풍은 현실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평양 326전선종합공장에서—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인재, 창의고안명수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해주고있는데 이것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과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한편 공장에서는 원료, 자재확보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이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종업원들속에서 이렇게 회수한 파전선, 파케블, 파수지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고있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그로부터 얻는 경제적실리는 결코 적다고 말할수 없다.

그 누가 원료, 자재를 가져다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한가지라도 더 재생리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공장 생산자들의 투쟁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국가적인 올해 과제들이 빛나게 수행되리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철

시

녀성의 행복

황금숙

아직 3.8절은 앞에 있건만
벌써부터 남편은 흥그러워진답니다
안해를 위해 앞치마 두르고
서툴어도 성의껏 음식을 만들겠노라 하니
기다려지는 남편의 칼도마소리
그것이 3.8절의 기쁨입니까

일터에 들어서면 축하의 꽃다발
아름차게 이 가슴에 안겨질것입니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위해
노래 불러 기쁨 더해주려니
따뜻한 진정에 종일 웃음 피울
그것이 3.8절의 즐거움입니까

꽃이라 불러주는 사랑
위해주고 아껴주는 정이 행복입니다
3.8절 그날에 가슴에 그득할
행복을 무엇이라 하겠는지
아마도 고마움의 눈물만 맺힐것입니다

생각깊이 새겨봅니다
하나의 부름 녀성이라 불리우건만
녀성의 운명은 하나같지 않음을
둘러보면 이 세상의 불행한 인생들속엔
버림받은 녀성들 그 얼마입니까

재난이 들이닥친 비극의 폐허에서
안타깝게 바라는 구원의 손길
멸시의 발길에 채워 타락의 시궁창에
비참히 내던져진 모습도 보여옵니다
전란의 불길에 자식들 잃고
울분의 가슴찢는 곡성도 들려옵니다

생각은 더욱 깊어집니다
인격도 존엄도 기쁨과 영예도
안겨주고 지켜주며 빛내주는 내 나라
이 조국 아니라면
3.8절이 어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녀성이라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떠받들어주고 내세워주며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조국 있어
그 품에 사는 우리 녀성들
가정의 꽃, 사회의 꽃으로 축복받으며
아름다운 삶 누려가거니

명절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꽃다발이 안겨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 이 나라 녀성들 한없이 행복함은
안겨사는 조국의 품 따사로워서입니다
원수님 어버이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속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합니다

우리 공장, 우리 제품

맛좋고 영양가높은 타조고기와 가공품들

공화국의 굴지의 타조생산기지인 평양타조목장에서 갖가지 타조고기와 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타조발쪽찜, 타조고기햄을 비롯한 식료품들은 그 맛이 뛰여날뿐아니라 영양가 또한 높아 인기를 끌고있다.

그리고 질기면서도 유연한 타조가죽과 속이 빈 타조알, 타조뼈, 타조털 등으로 타조가죽구두, 타조털부채, 타조뼈반지, 타조뼈물주리, 타조알공예품과 같은 희귀한 장식품들과 공예품들도 만들고있다.

타조뼈는 대퇴부분에 상아질을 보유하고있는데 이것을 리용한 뼈물주리는 기침을 멈추거나 가래를 삭이고 신경통을 치료하는 등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타조뼈를 리용한 이쑤시개는 입안의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며 법랑질이 전혀 벗겨지지 않게 한다.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공예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타조제품들은 그 수요가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보금자리에 대한 생각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공기와 물이 없이 살수 없듯이 사람은 집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 삶의 보금자리라고 한다.

지난 2월 26일, 자연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땅에 솟아난 새 보금자리들에서 정월대보름명절을 쇠는 강북리사람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류달랐다.

이른아침부터 알뜰하게 꾸려진 부엌에서 오곡밥을 비롯한 명절음식준비를 서두르는 가정주부들의 얼굴에도,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집안팎을 들락날락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흘렀다.

강북리의 어느 가정이나 그러했지만 금천군 강북고급중학교 교원 리명성의 집에서는 온 식구가 마당에 나와 쟁반같은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혹심한 재난을 당하였던 자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에서 만복의 주인공이 되여 행복의 달구경을 한다는 격정이 다시금 가슴속에 차올랐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아니라면 이런 꿈같은 현실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새 보금자리에서 대보름달을 바라보는 은파군 대청리사람들의 심정도 다를바없었다.

은파군 대청협동농장 농장원 조명옥녀성은 소중한 고향땅을 기름지게 가꾸리라는 마음을 안고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온 나라 곳곳마다 일떠선 새 보금자리들에서 울려나오는 고마움과 보답의 맹세는 정녕 끝이 없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화폭, 이런 현실을 상상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살림집건설은 끊임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그 살림집건설이 인민들의 주택문제해결에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살림집건설은 부자들의 탐욕을 위한것이지 수재민들이나 대다수 근로자들은 제 집에서 단란하게 살려는 소박한 꿈마저도 한생토록 이루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 빈 살림집들이 많다 하지만 그곳은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들어설수 없는 출입금지구역과도 같다. 하기에 돈많은자들은 혼자서 숱한 집을 소유하고 부동산투기를 하며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 주차장에서, 다리밑에서 천막이나 판자집을 짓고 살아가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 주택가격은 2017년이후 현재까지 평균 20만US$이상 올랐으며 특히 서울의 집값은 56%이상 뛰여오르면서 건설한지 30년이 지난 낡은 아빠트의 집값이 무려 100만US$를 넘어섰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전세집가격이 2019년에 비해 2배이상 올랐으며 그마저 전세집을 구하려면 하루종일 줄을 서거나 추첨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남조선주민의 40%이상이 제 집이 없이 세집에서 살고있는 형편에서 전세, 월세가격폭등으로 일반주민들은 세집조차 얻기 힘들어지게 되였다고 한다.

반면에 주택가격이 오르자 부동산투기는 더욱 성행해지고 부자들은 집을 몇채, 몇십채씩 가지고 부동산장사를 하면서 수십만US$의 리익을 보고있으며 결과 사회량극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다고 한다.

공화국의 새 보금자리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마움의 목소리와 자본주의세계에서 집이 없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터치는 절망의 한숨소리, 공화국에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 받고있는 훌륭한 살림집들과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집 아닌 거처지들.

과연 어느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더 좋은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는 보금자리인가.

본사기자 전명진

녀성들이 좋아하는 《은하수》화장품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제일 흥성이는 곳은 꽃상점과 화장품매대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3.8국제부녀절을 앞두고 남성들은 녀성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며 화장품을 안겨주려 꽃상점과 화장품매대들을 찾는다.

평양화장품공장 화장품전시장도 이날을 앞두고 손님들로 흥성거렸다.

전시장안에 들어서니 개성고려인삼화장품을 비롯하여 머리칼의 윤기를 더해주는 머리칼영양액과 휴대하기 편리한 겔형, 향긋한 과일향이 나는 공기졸형의 향수, 얼굴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주름방지크림 등 각종 화장품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색갈이 세분화되고 질좋은 입술연지와 분크림을 비롯한 색조화화장품들과 형태와 색갈이 다양하고 약리적효과가 좋은 기능성세수비누들, 효능높은 치료용화장품들, 맵시나고 편리하게 만든 화장도구, 화장도구가방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은하수〉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30여가지의 〈은하수〉화장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한데 이어 이 제품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액정상태의 결정을 이루고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액정화장품은 사람의 피부구조와 류사하기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부드러운감을 느끼게 할뿐아니라 화장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의 피부침투성이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 훨씬 높아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전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곳 봉사원들은 《은하수》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나이와 피부에 따르는 화장품을 고르도록 친절한 봉사를 하고있었다.

《지난해 3.8국제부녀절에 〈은하수〉화장품을 안해에게 선물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래서 이번에 또 왔습니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서 일한다는 리영민부원이 하는 말이였다.

《우리 연구소의 녀성연구사들에게 소문난 〈은하수〉화장품을 한조씩 안겨주자고 합니다.》

국가과학원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왔다는 일군도 웃으며 말하였다.

사회와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는 공화국의 녀성들이야말로 제일 복받은 녀성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전시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춘경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세계유술녀왕 계순희

세계유술전장을 종횡무진하며 련속적인 쾌승으로 사람들을 놀래운 녀자유술선수가 있었다. 그가 바로 공화국의 계순희이다.

16살에 국가종합팀의 선수가 된 그가 처음 참가한 국제경기는 1996년에 미국에서 열린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였다.

만만한 배심과 투지를 안고 맞다든 상대들을 보기 좋게 떨구어버린 그는 결승경기를 《유술의 별》이라고 자처하는 일본선수와 하게 되였다.

첫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쥔 그는 신심있게 경기를 운영하여 지난 시기의 전적을 뽐내며 기고만장하여 덤벼드는 일본선수에게 패배와 수치를 안기였다.

그후 계순희선수는 2001년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세계유술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하고 2003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유술선수권대회 결승경기에 나서게 되였다.

유술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경기전 과정을 주시하였다.

그가 또다시 기적같은 승리를 이룩하였을 때 세계는 아직까지 3개의 몸무게급에서 우승한 선수는 유술력사에 없다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그는 2005년 에짚트와 2007년 브라질에서 진행된 세계유술선수권대회들에서도 벼락치듯 한판으로 결승경기들을 끝냄으로써 4중세계유술선수권을 보유하였다.

세계출판보도계는 그를 두고 《최강의 실력으로 세계를 메친 유술영웅》, 《10년이 넘도록 세계패권을 지켜낸 계순희》라고 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국제경기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고 세계최강의 선수로 이름떨친 계순희는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다.

본사기자

다양화, 다각화된 기상정보봉사

기상정보는 나라의 자연부원과 사람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공화국의 기상부문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기상정보봉사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 기상정보교류소에서는 지역별 단기, 중기일기예보와 농업기상봉사, 해양기상봉사, 재해성기상봉사 등 10여가지의 기상정보봉사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있다.

손전화기용기상봉사프로그람 《날씨》 3.0과 국가망을 통해 봉사하는 기상봉사 및 재해경보프로그람 《날씨》 2.0은 여러가지 그림기호와 음성자료를 리용하여 정보봉사의 친절성과 편리성을 보장해주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이 좋아하고있다.

손전화기용프로그람 《농업기상》 1.5도 지역별 단기, 중기예보와 리단위별 농업기상자료들을 상세히 알려주는것으로 하여 매우 실용적이다.

농업기상정보들은 농작물들의 과학적인 비배관리에 도움을 주고 특히 병해충이 발생한 단위에서 현지의 상황을 사진으로 전송하면 농업연구단위와의 련계밑에 해당한 대책을 알려주어 병해충피해를 줄이고 농작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한편 《대중기상》, 《해양기상》프로그람사용자들도 늘어나고있다.

지금 기상수문국에서는 미세먼지상태, 대기질상태, 기온변화상태, 대기습도를 비롯한 기상정보봉사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대중보도수단과 통신수단을 통해 기상정보봉사, 기상상식봉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본사기자

봄철과 몸단련

봄철은 몸단련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하기 좋은 계절이다.

운동은 단련정도와 나이, 체질에 맞게 가볍고 단순한 운동으로부터 점차 강하고 복잡한 운동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한다.

봄철운동에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운동과 달리기운동이다.

달리기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5~6분정도로부터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20분정도로 시간을 늘여야 한다.

또한 제자리걷기, 계단오르기 등 여러가지 운동을 하는것이 좋다.

봄철의 변동되는 날씨에 맞게 호흡기관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찬물과 소금물로 입안과 목안을 자주 가셔내며 이발마주치기, 목부위찬물마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호흡기를 단련하여 감기, 편도염, 후두염, 기관지염, 폐염 등의 질병을 미리 막아야 한다.

봄철몸단련에서 중요한것은 옷을 간편하게 입는것이다.

피부를 통하여 열대사, 수분대사, 가스대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옷을 많이 껴입으면 이런 대사에 지장을 주고 활동하기에도 불편하다.

본사기자

전연기념물 청백향나무

청백향나무는 함경남도 금야군 청백리에서 자라는 한 그루의 나무이다.

이 향나무는 1550년경에 심은것이다.

나무의 높이는 10m이고 뿌리목둘레는 5.4m이며 나무갓너비는 동서로 18m, 북남으로 21m이다.

나무는 0.5m높이에서 3개의 큰 가지로 갈라졌는데 그 가지들의 둘레는 각각 2.6m, 2.1m, 2.2m이다.

이 나무는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작은 구름이 모인듯 하고 멀리서 보면 하나의 넓은 우산이 펼쳐진것 같다.

청백향나무는 동해안지방에서 가장 크고 오래 자란 나무의 하나로서 향나무의 크기와 나이를 연구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며 이곳 마을의 풍치를 돋구어주는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악기 운라와 편종

◆ 운라를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기 시작한것은 대략 14세기부터라고 본다.

운라는 대중악기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합주에서 색채적으로 써왔다.

운라의 음색은 금속성이면서도 포근하고 긴 여음을 가지고있다.

낮은 소리일수록 폭이 있고 처량하며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영글고 아름답다.

운라의 매력있는 음색은 멀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비슷하여 깊은 사색과 우아한 정서를 자아낸다.

◆ 편종은 자그마한 여러개의 종들을 악기틀에다 엮어놓고 연주하는 선률악기이다.

우리 선조들은 1116년경부터 궁중아악에서 사용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36개의 종을 엮어만든 편종과 24개, 19개, 14개로 된 편종 등이 있었으나 오늘까지 전해진것은 16개의 종으로 엮어서 만든 편종뿐이다.

종의 음색은 맑고 아름다우며 개방적인 여음이 긴것이 특징이다. 긴 여음으로 하여 빠른 선률연주는 곤난하다.

본사기자

사화

고려청자에 깃든 이야기 (2)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허나 어찌된 조화인지 겨레를 떨치고저 하는 비색자기가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수백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도처의 흙을 가져다 자기를 구워낸 끝에 얻어진것은 기껏 청회색자기였다.

정녕 비색이 령롱하게 어려있는 청자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도저히 이룰수 없는 꿈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 꿈을 버릴수 없었기에 왕씨가문은 대를 이어가며 청자기를 구워내려고 고심하였다.

이러한 때 외적이 불의에 발해를 침공하였다. 병술년인 926년에 횡포한 외적이 달려들어 상경을 점령하였던것이다.

발해가 멸망한 그해 왕씨집안은 결단코 함께 자기를 굽던 사람들을 이끌고 동족의 나라 고려를 찾아왔다.

고려에서는 살길을 찾아 사선을 뚫고온 발해의 자기공들을 동족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었고 살기도 좋고 고려의 자기공들도 많이 사는 례성강가의 강음땅에 자리를 잡도록 해주었다.

강음땅에 터를 잡은 발해자기공들은 고려자기공들과 힘을 합쳐 적지 않은 자기들을 구워내면서 자기의 진보를 이루어놓았다.

력대 임금들의 신주를 두는 태묘로부터 왕건태조대왕의 현릉이며 2대, 3대임금들의 묘들에 바치고 제사에 쓰는 기물들은 물론 궁중과 사찰들, 관청들에 소용되는 갖가지 사발과 접시며 병들, 단지와 항아리들, 주전자와 잔들, 분함이며 문방구 등 별의별 모양의 자기들이 구워졌다.

그것들마다에 선무늬, 둥근무늬는 말할것도 없고 국화무늬, 모란무늬, 학구름무늬, 넝쿨무늬, 버들무늬, 봉화무늬같은 섬세한 무늬들을 오목새김도 하고 돋을새김도 하였다.

이제는 자기가마도 세개로 늘어나서 날마다 자기들이 쏟아져나오니 벼슬아치뿐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차례지는 정도였다.

보다 자랑할만 한 일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아직은 세상이 모르는 신기한 상감자기를 만들어낸것이였다.

그릇겉면에 여러가지 무늬의 홈을 파내고 거기에 알맞는 색을 낼수 있는 색흙을 다져넣고 구워내는 상감기법이야말로 고려의 자랑이라고 할만 했다.

할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가문이 대를 두고 고심해오는 비색이 령롱한 청자기를 만들어내는것이 그의 소원이였던것이다.

허나 할아버지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몇해전에 운명하고말았다.

이제는 왕씨가문의 소원이 오로지 아버지 한사람의 몸에 실려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벌써 예순고개이니 왕공탁은 자기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감했다.

《비색이라…》

왕공탁이 입속으로 중얼거리고있는데 그의 송아지친구들인 리미거와 심기가 나타났다.

리미거가 근심조로 물었다.

《자네 어쩔셈인가?》

그 물음에 왕공탁은 울상이 되여 한숨을 지었다.

심기가 울상이 되여버린 왕공탁의 팔을 잡아흔들며 우스개소리를 하였다.

《야! 친구의 찌프린 얼굴을 보느니 바보의 웃는 얼굴을 보는게 낫다는데 웃어라!》 하더니 심기는 정색하여 말했다.

《사내자식이란게 제 주장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온대도 내대야지 계집애들처럼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해야겠니?》

리미거가 맞장구를 쳤다.

《옳아. 날마다 진저리나는 황록청 아니면 황청색자기만 나오는데 네 주장이 있다면서 왜 우리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못해?》

그 말에 왕공탁의 눈이 번쩍했다.

등잔불밑이 어둡다고 리미거네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할 생각을 못하다니…

리미거의 아버지는 왕공탁의 아버지와 딱친구이자 자기가마소의 일속에 환했다. 그래서 향기장이 없을 때면 그가 대신하군 하였다.

리미거의 아버지는 왕공탁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고 그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군 하였다.

왕공탁은 사기가 나서 리미거의 손을 움켜잡았다.

《야! 너 왜 인제야 그 말을 해? 어서 가잔 말이다, 어서!》

세 젊은이는 사기가 나서 홍산을 뛰여내렸다.

리미거네 집은 삼포말복판의 왕공탁이네 집과 이웃해있었다.

마당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서있고 울바자로 심은 앵두나무에서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앵두알들이 눈길을 끌었다.

마침 점심참이여서 비색을 낼만 한 돌을 찾아 마을뒤산에 올라갔던 리미거의 아버지도 집에 들어서고있었다.

한걸음 먼저 리미거네 집뜨락에 들어선 왕공탁은 그를 보자 그전처럼 《숙부님!—》 하고 부르며 깊숙이 허리를 굽히였다.

…

이튿날 이른아침 왕공탁은 서경으로가 아니라 홍산의 자기가마소로 향했다.

홍산에 오른 그는 잠시 고향산천을 둘러보았다.

어제 갈아서는 며칠토록 비질을 할것 같던 검은 하늘이 밝게 개이여 가을하늘처럼 푸르렀다. 드문드문 흰구름들이 뭉게뭉게 떠있는 하늘아래 동쪽으로는 례성강이 펼쳐지고 도비산, 초대봉, 광석산으로 빙 둘러친 그 한가운데 오붓하게 자리잡은 마을이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는 고향이였다.

아직도 아버지는 막사무골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빨라야 닷새안에 온다는것이였다.

비색을 뿌리는 진짜배기 청자기를 얻으려 그리도 애를 쓰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왕공탁은 저절로 눈시울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저리여왔다.

비색을 낼만 한 돌을 찾아 헤매일 아버지를 그려보느라니 왕공탁에게는 언제인가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말이 또다시 생각났다.

민족음식

약밥

약밥은 말그대로 약이 되는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기본재료인 찹쌀은 몸을 덥히고 새살이 잘 나오게 하며 원기회복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꿀은 간기능을 높여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며 위궤양, 빈혈, 고혈압 등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밤, 대추, 잣, 은행도 다 강장, 강정효과를 가지므로 몸이 몹시 쇠약해졌을 때 먹으면 원기를 회복해준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찹쌀 1kg일 때 대추 100g, 은행 100g, 밤 100g, 잣 30g, 꿀 100g, 사탕가루 100g, 소금 3g, 간장 5g, 참기름 50g, 계피가루 3g을 준비한다.

찹쌀은 불구었다가 푹 찐다음 식기 전에 사탕가루, 꿀, 참기름을 두고 잘 버무린다.

밤은 껍질을 벗기고 은행은 까서 닦는다. 대추는 씨를 뽑아놓는다.

밥에 대추, 밤, 은행, 잣, 계피가루, 소금, 간장을 두고 잘 섞어서 밥알이 간과 물기를 다 빨아들일 때까지 두었다가 다시 푹 쪄서 낸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방망이가 가벼우면 주름이 잡힌다.

다듬이질에서 방망이질을 약하게 하면 주름을 펴지 못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철저히 하지 못하면 결함이 생긴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열번 잘하고 한번 실수를 말라.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한번 실수를 하면 랑패를 본다는 뜻으로 언제나 실수가 없도록 일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